

지방 음악 발전에 관한 연구

-경남을 중심으로-

박 현 수*

차 례

- I. 서 론
-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II.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방안
 - 1. 음악비평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 2. 전문공연장의 확충
 - 3. 국제음악캠프와 페스티벌의 개최
- IV. 결 론

I. 서 론

현대 사회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방화와 세계화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지역실정에 맞는 고유한 문화의 유지와 창조로 정의되는 지방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예술 등의 국가적 경계를 없애 세계적인 표준에 맞추어 전체 인류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인 세계화이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이나 각종 국제협약이나 기구への 가입 등은 이러한 현상을 대 표적으로 표현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그 속도에 있어 매우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어 여기에 적응되지 않음은 곧 전체 사회에서의 도태를 의미한다. 사회의 전반에 영향 을 주고 있는 이러한 경향성은 문화적인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래 산 업사회에서 가장 유망하게 인식되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가 문화 특히 예술산업이라고 전제할

* 창원전문대학 부교수

때 이 부문에서의 경쟁은 사회간에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예술은 많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쟁력의 제고(提高)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인프라(infra)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즉, 높은 수준의 예술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문화의 발전은 몇몇의 엘리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음악의 연주회나 미술의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행사에 많은 대중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예술의 지방화와 세계화라는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에 적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방화와 세계화라는 두 개의 개념은 전혀 별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지방화라는 기반 위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문화계, 특히 음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엘리트주의, 중앙집중화 및 활성화되지 못한 비평문화는 음악의 저변확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음악에 대한 전문적이거나 자유로운 혹은 부정적인 비평이 제약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중앙 집중적인 공연이나 음악행사 혹은 몇몇의 엘리트에 의한 음악이 되어서는 안된다. 저변의 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이는 지방 음악문화의 발전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의 소도시, 가깝게는 일본의 소도시가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 및 훌륭한 공연시설, 자유로운 비평문화 등과 같은 음악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형 음악축제 등의 개최를 통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물론, 모든 지방의 도시들이 음악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국제적인 수준의 음악문화를 향유하기 이전에 중앙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지방의 주민들에게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음악적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음악에 대한 발전적 관심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지방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불균형적 문제점과 나아가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하여 지방 음악문화의 발전과 세계화를 도모하는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경남 지역에서 서로 근접하여 교통이 용이하며 그에 따라 음악의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는 가장 넓은 음악 활동 문화권은 마산, 창원, 진주, 진해 등 4개의 도시를 아우르는 경남의 중서부 권역이다.¹⁾ 현재 이 4개의 도시가 경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연구 대상은 마산, 창원, 진주, 진해를 중심으로 하여 경남의 중·소도시까지 다루기로 한다.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은 광역시 승격 전·후로 하여 자료와 함께 제시할 것이다. 방법은 경남 음악 발전을 더디게 하는 문제점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선행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고 거기에 대한 방안 제시로 본 연구의 의의가 합당하도록 조사한다.

Ⅲ.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방안

1. 음악비평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1) 음악비평의 필요성

음악비평은 성격상 크게 주관주의 비평과 객관주의 비평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관주의 음악비평은 드뷔시(C. A. Debussy, 1862~1918)와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 1884~1924)²⁾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한 개인의 태도를 전달하며 개성이라는 인상이 내포되어 있다. 예술에 대한 비평이라는 측면에서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문학비평 역시,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는 주관성을 가지고, 어느 한 그룹에 속해야한다고 말하며, 독자에게 호응을 얻으려면 어차피 어느 한 쪽은 칭찬하고 다른 한 쪽은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버나드 쇼우(George Bernard Shaw, 1856~1950)도 ‘음악 평론가가 되는 길’에서 비평에서 공정성이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리만(Hugo Riemann, 1849~1919)과 아인슈타인(Alfred Einstein, 1880~1952)이 쓴 ‘음악 사전(Musiklexikon)’에서는 평론가로서의 최대의 요건을 가장 객관성을 띄고 있는 판단까지도 모두 주관성이 개입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들고 있다.

반면, 런던의 ‘옵저버(Observer)³⁾’의 음악 평을 맡았던 월포드 데이비즈(Henry Walford Davies, 1869~1941)는 “단순한 비개인적 진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객관주의 음악비평을 주장하였다. 1936년 나찌 독일의 문공부 장관 요셉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 1897~1945) 역시 ‘앞으로 모든 형태의 예술 비평은 칭찬이나 비난이어선 안되고 단순히 서술하는데 그

1) 강동주, 경남지역 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 활동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4.

2) 소설가. 황금시집, 빨간 백합 등의 작품이 있고, 1921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였음.

3) 1791년 영국에서 창간되어 현재까지 존속하는 최고(最古)의 일요신문. 당초에는 통속대중지였는데, 뉴스보도에 치중하면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호평을 받게 되고, 1905년부터 고급평론지로 자리잡음.

쳐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단순한 기사보도의 입장을 넘어서는 것이 음악 평론이고 보면 비평에 있어서의 주관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된다.

즉, 평론가가 아무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평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음악문화에 있어서 비평이 음악활동을 보완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는 아마도 비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비평에 평론가들의 주관이나 편견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비평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은 비평의 고유한 목적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가능하면 높은 객관성을 전제한 비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으로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나쁜 것에 대해 감히 비판하지 않는 평론가는 좋은 것에 대해서도 냉담한 정원사이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음악평론사를 살펴보면 지금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 당시의 새로운 작품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판 기사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에는 그 평론이 건강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비평은 그 자체가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평론가는 종전 선험 간에 자신을 포함한 동시대인들이 음악을 받아들이는 특징의 태도와 방식에 기초하여 글을 쓰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현재의 인생관에 있어서 음악의 위치를 가름해 준다. 특히 새로운 작품에 대한 비평의 경우에는 그것이 신작에 대한 일반화 과정의 최초단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윈톤 딘(Winton Dean, 1916~)에 의하면 평론가는 (1) 음악예술, (2) 사회와 청중, (3) 작곡자, (4) 연주자, (5) 후원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선 평론은 독자가 읽기 위한 것이므로 음악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비평은 독자 또는 잠재적 청중에게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 뿐만 아니라 호기심·관심·정열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평론가는 독자로 하여금 문제의 작품 또는 음악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론가는 작곡자(생산자)와 청중(수용자 또는 소비자) 사이의 매개자이다. 소수의 음악가와 소수의 청중이 존재했던 귀족사회와는 달리 다수의 음악가와 다수의 청중이 존재하는 대중사회에서는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평론가의 역할은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음악평론은 새로운 연주자, 작곡가의 발굴 및 소개, 청중의 음악적 소양 향상, 음악여론의 반영 및 형성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평론가는 그 역할에 있어서 정원사에 비유될 수 있다. 정원사는 정원을 가꾸는데 있어서 이

중적 의무를 지낸다. 정원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지치기, 잡초제거와 거름주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중 가지치기와 잡초제거는 현재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나무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아마도 나무에게 있어서는 고통을 동반할 것이나 미래에 보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정원사가 행하여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거름주기는 나무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그래서 나무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로 볼 수 있다. 즉, 비평이란 그 대상자에게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성취나 만족과 같은 심리적 보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음악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보다 나은 음악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2) 비평의 풍토조성과 비평활동의 활성화

음악 비평은 음악 작품과 연주자에 대해서 공개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결코 비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평은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표현되어야 하며 평자의 감정이 비평대상 즉, 연주나 작품에 대한 잠재적인 감정은 애정이어야 하며 비평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음악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계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비평행위 자체가 궁극적으로 개인 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⁴⁾

활자화되는 음악평론은 음악을 내용으로 한 일종의 문학이다. 문학이라 함은 단순한 언어의 사용이 아닌 글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논리성과 설득력, 정의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대가의 작품이나 연주라면 무조건 미사여구로 칭찬을 늘어놓는 식의 비평은 가치가 없다.

비평은 반성에서 시작된다. 그 반성에서 비롯된 비평은 또 다음 단계의 반성을 필요로 한다. 이른바 비평의 비평을 요구하게 된다. 중앙에서의 평론 역시 어느 정도의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중앙의 음악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평론의 비전문화, 평론의 지면부족, 평론에 대한 인식부족, 평론가에의 대우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천적 가치로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연주분야와 창작분야는 세계화의 기류에 편성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평은 물론 그 평론에 대한 반성적 시도까지 여전히 후진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 서양음악의 역사를 볼 때 비평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실감한다면 비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4) 배상환, 월간음악저널, 김규현씨의 음악비평에 대한 나의 생각, 1990. 9.

한 연주회가 있기 전 연주자나 단체의 프로필과 연주 경력은 포스터, 프로그램, 신문 등을 통하여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연주 후의 평문은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여전히 비평에 대한 인식이나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하나 그나마 중앙에서는 많은 평론가와 비평을 실을 수 있는 지면이 있어 거의 모든 연주회에 대한 평이 여러 종류의 음악잡지에 실리고 있다. 보다 나은 음악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 볼 수 있는 비평은 아직까지 지방에서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음악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회문화의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다.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중시하는 유교주의적 문화와 음악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연장자 등과 같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등과 같은 한국적 문화특색으로 인해 비평문화가 현재의 여건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바꾸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관례적·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음악이나 예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면이나 혹은 예술과 관련한 비평을 실을 만한 지면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음악이나 예술을 다루는 전문지가 소수이며, 그 독자층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비평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비평을 할 만한 매체가 없다. 따라서 비평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지를 통한 비평만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매체라 할 수 있는 TV, 신문, 독자층이 넓은 잡지 등에 유명 연주회를 대상으로 먼저 비평을 실시하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 후에 이를 매체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평론가가 없다. 즉, 음악에 대해 제대로 비평을 할 수 있는 요건이나 능력을 갖춘 평론가를 지방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론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방면의 악기에 소양을 갖고 음악을 사랑하는 뛰어난 감각과 정확한 판단력 등이 전제된다. 윈톤 딘은 평론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⁵⁾으로 다음의 8가지 요건을 들고 있다. ① 음악이론과 기법에 대한 지식, ② 음악사, 음악학에 대한 지식, ③ 포괄적인 교육, ④ 현명한 사고력과 명쾌한 문장력, ⑤ 창조력, 상상력을 발견하는 눈, ⑥ 자신의 철학, ⑦ 끊임없는 학구욕, ⑧ 건강한 겸손 등이다. 그러나 비평에 대한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비평가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도 비평을 할 기회가 없어 전문적인 비평가가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 것도 비평가가 없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평론가가 없어 비평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구조적인 문제, 지면의 부족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복합적인

5) Dean, Winton, *The Rise of Romantic Opera*, London 1976.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비평가에 대한 이해와 비평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평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비평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방음악의 발전속도는 느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은 활동에 대해 반성과 고찰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음악의 질적 향상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비평풍토 조성이 되기 위한 제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비평을 받는 쪽에서 비평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 비평을 비평할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제대로의 비평이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미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음악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평을 통해 음악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비평가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 각 일간지에 지상을 통해 공동비평을 한다든가(지면을 할애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평론위원제도 또는 팬 클럽 구성(정보교환과 상호보호)도 비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지만 모두 충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건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점차로 비평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보다 중요하다.

평론가는 진정 죽은 나무와 생명체를 구분하고 눈속임 속에서도 진리를 찾아야 한다. 작업이 힘들고 설령 나쁜 평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청중, 독자의 비판적 태도와 능력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존재 이유를 획득한다. 그러므로 최종의 판결자는 음악평론가가 아니다. 평론가는 판결을 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비평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수용도 유도해야 한다. 훌륭한 평론가와 사이비 평론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독자이기 때문이다.

2. 전문공연장의 확충

공연예술에 있어서 무대는 비단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양질의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다.

지방화시대라고 말들은 하지만 경남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은 서울과의 차이가 더욱 심해 문화예술의 중앙중속화가 여전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유럽과 구미의 유명 연주거나 단체가 연주여행 스케줄에 꼭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는 매니저먼트들의 활약과 일본의 상업성이 혼합된 작품이겠지만 공연장이 없으면 외국의 연주인도 일본에 오기를 꺼려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제적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나라의 경우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다. 연주인의 바쁜 일정과 기획사의 상업주의도 있겠지만 지방으로 가면 연주할 곳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기획들의 변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대도시에만 훌륭한 공연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소도시,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시·군 지역에 공연장이 있어 세계적인 연주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남의 문화예술 공간 실태는 어떠한가?

전문적인 종합공연장은 진주문화예술회관 1곳 뿐이며, 나머지는 창원에서 KBS홀을 공연장으로 겸하고 있고, 마산에서는 MBC홀을 공연장으로 겸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공연장 3곳, 소 공연장 11곳, 시·군민회관이 8곳으로 있지만 일반 공연장 3곳, 진해와 통영시민회관을 제외하고는 음악회가 열리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이다(<표 1>).

<표 1> 경남지역 문화공간 현황

구 분	문화공간명	시 설	객 석	비 고
종합공연장	도 문화예술회관 (진주)	대공연장	1, 409석	2000년 4월 준공예정
		소공연장	280석	
		전 시 실	296평	
	KBS 창원홀	공 연 장	1, 973석	
		전 시 실	243평	
		공 연 장	1, 158석	
일반공연장	마산 MBC홀	대공연장	1, 720석	2000년 4월 준공예정
		소공연장	510석	
		전 시 실		
	문화예술회관 (창원)	공 연 장	447석	
		공 연 장	648석	
		공 연 장	750석	
시·군민 회 관	올림픽 국민생활관 (마산)	대공연장	442	
		소공연장	84	
		집 회 장	350	
	늘푸른전당(창원)	소공연장	405	
		전 시 실	101	
		집 회 장	450	
	동환아트홀(창원)	사용불능		
		집 회 장	500	
		강 당	600	
	진해시민문화회관	공 연 장	700	

자료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공간 현황, 1996.

진주문화예술회관이 88년 준공된 이후 약 5년간 사용한 자료와 최근 2년 동안의 사용한 자료집(<표 2>)을 보면 해마다 사용일수가 늘어가고 공연횟수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88년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외국 연주인들의 연주가 있게 되고 국내의 여러 단체들이 진주를 찾게 되어 진주의 음악문화가 꽃을 피워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창원, 마산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창원은 그나마 KBS홀이 있어서라고 자위해보지만 마산의 경우는 더 심한 지경이다. 그동안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산시민들은 공연, 연주회 등이 자주 열리는 KBS창원홀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1996년 마산 MBC홀이 개관되고 난 후 음악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지역 음악의 문화적 실조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표 2> 진주문화예술회관 연도별 내용(장르)별 사용건수 (1988~92, 98~99. 10. 30)

구 분	계	음 악	연 극	무 용	뮤지컬	영 화	전 시	문예행사	일반행사
1988년	73	22	3	11	1		14	8	14
1989년	293	70	28	15	9	5	51	27	88
1990년	358	74	26	26	9	20	49	32	122
1991년	350	77	25	25		25	50	46	102
1992년	393	89	19	19	10	9	66	50	131
1998년	414	154	4	44	14		78		120
1999년	321	96	10	49	20		69		77

자료 : 경남문화예술회관, 내부자료 1993.

경남문화예술회관, 내부자료 1999.

울산은 1995년 10월 문화예술회관, 1998년 6월 현대미술관이 준공된 후 울산음악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후에는 문화예술 부분의 행사가 국제적인 것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볼 때 전문 종합 공연장의 건립과 시의 재정적인 후원이 그 도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 울산은 문화예술회관과 현대미술관이 개관된 후 경남 지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빈 소년합창단,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트리오 초청연주회, 미사 마이스키 첼로 독주회, 조수미 독창회 등 국제적인 단체의 연주회와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이 많은 음악회를 열었다. 울산은 예전의 경남의 일부분으로 문화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씻고 광역시로써 울산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제 창원문화예술회관이 2000년 4월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어 이후 창원음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여전히 마산은 전문종합공연장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관련당

국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공연장과 전시실, 자료실을 고루 갖춘 문예회관이 각 시·군마다 있어야만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문화예술의 중앙중축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 울산문화예술회관 연도별 내용(장르)별 사용건수 (1995~1999.11.30)

구 분	계	음 악	뮤지컬	국 악	연 극	무 용	국 악	영 화	기 타	문예행사
1995년	60	27	1	6	8	5	6			
1996년	175	71	4	6	20	17	6	1	1	
1997년	197	80	8	11	13	14	11	3		10
1998년	198	73	9	11	16	16	11	6	1	9
1999년	226	87	11	9	34	15	9	1	1	8

자료 : 울산문화예술회관, 내부자료, 1999.

각 시·군마다 균형 있는 전문문화공간이 생겼을 때 음악 뿐 아니라 연극, 무용 등 각종 무대예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겠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청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높아진 삶의 질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될 것이다.

3. 국제음악캠프와 페스티벌의 개최

Aspen, Salzburg, Tanglewood 등 국제 음악캠프나 페스티벌의 이름을 듣고 가슴이 뛰지 않는 음악인이 있을까?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이국의 정취를 함박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세계적인 대가의 지도를 받아 내실을 이룩하는 것은 물론, 각국에서 모여든 서로 전공이 다른 음악도를 접함으로써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은 음악인으로서 갖는 당연한 욕심일 것이다.

청중에게 폭넓게 호소하는 일반의 음악 페스티벌은 긴 역사를 가졌지만 최근에 와서야 그 거대한 페스티벌의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간된 예술 연감에 의하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페스티벌은 2천여건에 달하며, 미국(404건), 프랑스(198건), 독일(151건), 영국(148건), 이탈리아(120건) 등이 특히 활발하다. 이에 비해 아시아는 48건으로 상대적으로 개최 수가 적다. 그러나, 정보의

지역편차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을 것이다.

이 숫자상의 증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를 특정 짓는 두 발전을 반영한다. 즉, 수백만의 사람들의 재량에 맡겨진 여가시간의 양이 증가했고, 관광사업이 의외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현재 유럽의 대부분의 연주들은 매진될 뿐 아니라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을 때가 흔한 일이다. 특히 독일의 가장 오래된 음악 페스티벌인 뮌헨(München)오페라 페스티벌⁶⁾의 경우 보통 5배나 예약이 초과되곤 한다.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갔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음악 페스티벌이 호황을 이루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 수요는 문화에 대한 관심과 휴가와 여가를 위하여 할애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로서 생각되며, 또한 공급의 측면에서 보자면, 먼저 연주홀과 오페라 하우스들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높은 예술적 활동들에 대한 제한에서의 해방과,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기인한다. 이제 페스티벌들은 예술적인 연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나타났다.⁷⁾

음악 페스티벌이 제공되는 도시나 마을을 방문하는 여행자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뿌리고 가는 것을 보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예로써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모차르트(W. A. Mozart, 1756~1791) 매니아는 리더 호센(Leder Hosen; 승마용 가죽 바지), 목각물, 자수품, 뼈꾸기 시계, 판화, 우산, 초콜렛 등의 훌륭한 기념품을 사 가지고 간다.

또한 이들은 호텔, 음식점, 커피숍, 나이트클럽, 카지노 등에서 큰 돈을 소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음악회 표값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페스티벌 하나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나 문화적 수준이 격상되어 세계화된 도시와 국가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를 경남에, 경남을 세계 속에 자랑스럽게 펼쳐보이려 한다면 국제 규모의 음악캠프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일본의 구사쓰(草津) 국제 아카데미와 페스티벌⁸⁾(Kusatsu International Academy & Festival)을 예로들면 구사쓰는 동경에서 약 200km떨어진 군마(群馬) 현(縣) 북서부에 위치한 조그마한 소도시이다. 여기에 세계의 음악가들이 모여들고 유명 연주가들이 강사로 또는 연주가로 활약을 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다른 유럽의 페스티벌은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역사가 오래되고 수없이 많은 전문지나 일간지에 오르내려 이미 정평이 나있지만 일본은 불과 10여년

6) Stand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p.510.

Munich Opera Festival: 1875년에 시작하여 1901년부터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매년 7월~8월에 열린다.

7) 문화예술(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1996, p.28.

8) 나를 배우고, 너를 만나는 음악축제, 월간 객석, 1984, 7.

전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봄 직하다.

1980년 8월 시작하여 바하(J. S. Bach), 모짜르트, 브람스(J. Brahms, 1833~1897), 슈베르트(F. P. Schubert, 1797~1828) 등 해마다 새로운 테마를 정하고, 세계적 음악가를 초빙하여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아카데미와 음악팬들을 위한 연주회를 2~3주 동안 개최하고 있다. 구사쓰는 해발 1,200m의 고원으로 온천지대로 유명하며 여름에도 가을처럼 신선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이름이 나있다. 행사의 개최지역 조건으로서는 경남의 어느 곳과도 별 차이가 없다.

행정기관에서 문화예술부분에 갖는 관심 어린 시각과 지원, 민간단체(기획사)의 활동이 차이를 보일 뿐이다.

1994년 여름 휴가철에 행정기관으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관광경남”이라는 TV광고를 실시, 관광객을 유치한 결과 7월과 8월 경남 관광객 총 수는 1천 3백만명에 달해 1993년 동기기간보다 250% 증가하는 신장세를 보였다. 관광상품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도 대대적인 선전과 지원이 따른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유럽과 구미의 페스티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이 수많은 뮤직 페스티벌 속에 경남이 주최하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하루빨리 생겨났으면 싶다.

이미 국내에서는 안성뮤직캠프, 국제하계음악학교, 용평 등의 캠프가 소개되어 음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 음악제는 1976년 처음 시작되어 해마다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경남지방에서는 1992년 여름 마산,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공연단체(음악)가 참여 마·창 지역을 문화적으로 하나되게 만든 사례가 합포만 음악제이다. 올해로 제8회를 맞았는데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친숙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덟번째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피아니스트와 트롬보니스트가 참여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어 확실하게 경남의 문화행사로 자리 매김 해 가고 있다. 이 행사를 근간으로 하여 아시아와 동구권까지 포함되면 명실공히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 페스티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음악만이 아니라 무용, 연극 등 무대공연예술이 모두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이다.

2000년 2월에는 통영에서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작곡가) 윤이상을 기리는 통영 국제현대음악제가 열릴 것이다. 특징적인 문화상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업적을 고향 통영에서 기려야 한다는 당위성이 합쳐져 연주회와

<표 4> 국가별 주요 국제음악제명 및 특기사항

음악제명	개최국	일정	특기사항
Aspen	미 국	6월~8월	여름강좌로 세계 유명 연주자들이 초빙되고, 하이킹, 승마, 수영 등 과외활동이 있다.
Bayreuth	독 일	7월~8월	Richard Wagner가 설립한 페스티벌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Budapest	헝 가 리	7월~10월	1959년에 시작된 페스티벌로 여름에는 오페라, 야외공연, 가을에는 리스트 피아노 경연대회가 열린다.
Edinbrugh	영 국	8월~9월	스코틀랜드의 주요 시 교향악단, 오페라단, 극단 무용단의 공연이 있다.
Helsinki	핀 랜 드	8월 중순~9월 초	1967년에 시작된 페스티벌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페스티벌로 개최된다.
Holland	네 달 란 드	5월~9월	세계 유수의 단체를 초청하여 연주회,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을 가진다.
Israel	이 스 라 엘	9월	오페라, 실내악연주회 등이 개최되는 페스티벌
Lucerne	스 위 스	8월 중순~9월	유럽 최고 페스티벌의 하나, 해마다 주제가 바뀌고 있다.
Ottawa	캐 나 다	7월	오페라를 위주로 하는 페스티벌
Proms	영 국	7월~9월	이곳에서 개최되는 Henrywood promnade 연주회는 런던 최고의 하계 예술 행사이다.
Salzburg	오스트리아	7월~8월	오페라 공연, 오케스트라 및 독주자의 연주회가 열리며 과외행사도 풍부하다.
Santander	스 페 인	8월	고전 음악, 스페인 음악, 민요, 발레 등을 주로 하는 페스티벌로 중세의 운치를 맛볼 수 있다.
Strasbourg	프 랑 스	6월~7월	베를린 필 하모니가 초청되는 수준 높은 페스티벌로 유럽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Tanglewood	미 국	7월~8월	뛰어난 자연환경 등 여러 면에서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페스티벌, 여름 학교도 개설된다.
Valle d'Italia	이 탈 리 아	7월~8월	지방행정당국, 관광부서의 협찬으로 광범위한 음악과 춤의 향연이 벌어진다.
Vienna	오스트리아	5월~6월	Volksoper opera와 오케스트라공연, 영화감상 각종 전시관 참관 등의 과외활동이 있다.
Warsaw	폴 란 드	9월	고전 음악, 아방가르드, 실험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을 레퍼토리로 하고 연주회를 열고 있다.

워크숍, 윤이상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전시, 윤이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등으로 꾸며진다.

이는 현대음악을 국내에 소개해 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우리 음악이 국제무대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게 된다면 경남의 문화축제, 나아가 세계의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국제사회의 상호의존 경향이 더욱 짙어 갈 것이고, 민족이나 언어를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예술 페스티벌의 중요성은 계속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제적인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역할은 정치나 경제활동 이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페스티벌은 국경이나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가치의 창출이 주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페스티벌이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민간기관이나 예술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불가결한 요소이다.

IV. 결 론

지방 음악계가 여러 가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욕을 불태우며 음악문화 창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청중들은 중앙의 유명 연주자나 단체의 초청공연에만 몰려들고, 지방 연주자나 단체들이 주최하는 공연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국제적인 연주자나 단체들의 공연에는 그 청중의 수에 더 많은 편차를 보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첫째, 비평의 풍토조성과 활성화를 통하여 음악의 질을 좀더 높이고 음악의 교양적 문화, 비옥한 예향의 면모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인연, 학연, 지연 등에 얽매여 있지 않는 개방적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지역문화 사랑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음악 문화공간인 문화예술회관의 빠른 건립과 사용의 다양화를 통하여 양질의 음악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길러야 한다. 문화예술회관건립을 현 세대가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물론 지역사회인 모두의 동참을 요구한다. 그리고, 뜻 있는 기업인들의 문화예술방면의 투자도 권하고 싶다.

셋째,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모두의 가슴속에 집어 넣는 일이다. 문화를 획일적인 기준에 우열을 가리는 사고에 젖어있다면 중앙을 영원히 뒤쫓아가는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이나 외국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일이 필요하다. 굳이 합포만 음악제가 아니더라도 경남을 대표할 만한(예 : 고성오광대) 캠프나, 페스티벌(지리산권, 통영 거제권 등)을 개최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문화는 하루 아침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거시안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체를 이룰 때 경남의 음악문화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주. "경남지역 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 활동 비교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김규현. *신사고 음악평론 테러리즘 음악평론의 시비*. 서울 : 작은 우리, 1991.
- 김진균(역) *음악의 역사와 사상*. 서울 : 형설출판사, 1975. Leichtentritt, Hugo.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통계*, 1997.
- 배상환, *월간음악저널*, 1990. 9.
- 음악대사전 편찬위원회(편), *음악대사전*. 서울 : 삼진출판사, 1974.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 서울, 1996.
- Apel Willi. *Harvard Dictionary of Music*. London : Harvard College, 1970.
- Croker, Richard. L. *A History of Musical Style*. New York , 1966.
- Dean, Winton. *The Rise of Romantic Opera*. London, 1976.
- Grout, Donald Jay. *A History of Western Music*. 김진균, 나인용, 이성삼(공역). *서양음악의 역사*. 서울 : 세광출판사, 1986.
- Helm, Everette. *Composer, Performer, Public*. Florence, 1970.
- Sadie, Stanly.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Macmillan, 1980.
- Werner. Braun, *Musikkritik*. 대학음악저작 연구회(역), *음악비평*, 서울 : 삼호출판사, 1991.

ABSTRACT

The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Provincial music - in case of Kyongnam Province -

Park, Hyun Soo

The current music society is faced to the centralization phenomenon following famous musicians. So, we have to study the problems of provincial music and suggest some solutions. This research is made to help provincial music's establishment as International.

It is a fact that provincial music circles are now making every efforts to develop musical civilization under poor circumstances. However, the audience are likely to prefer attending some famous musicians or performing groups. At a result, the provincial musicians finally lost their audience and shrunk their musical activities. Moreover, the performance of famous international musicians(groups) makes much worse.

We want to give some suggestions for growing provincial musical activities.

1. We should level up the music's qual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criticism and we have to keep up the pride of local art.

We have to avoid the blood relations, school relations and regional relations aiming for fully open-minded consciousness.

2. We have to raise qualified music and citizen's self-pride through the modernized cultural hall's building.

The building of cultural hall must be done in advance and should be for next generation instead of current generation.

In order to build the cultural hall, all the regional concerned parties should pay keen

attention to this and invest with a good will.

Moreover, the investment of enterprisers concerned about music is much desirable.

3. We always keep in mind that the most provincial is the most common.

We do not need to follow the fixed culture(Seoul or foreign music).

We need to develop regional specific character such as "Kosung Okwangdae" representing Kyongnam province and regional festival.

So, Kyongnam province is to be acknowledged as international.

The culture cannot be built in a day. When all of us go forward step by step and corporate together. We believe that Kyongnam province can be obtained international reputation in musical culture.